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8호 【루게 제25867호】 주제 106 (2017)년 12월 24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이정표를 아로세기며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12월 23일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3일회의에서 력사적인 연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강화하자》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이후 당세포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내재하고있거나 드러난 결함들이 정확히 분석총화되



우고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과 유훈, 당정책을 심장깊이 새기고 끝까지 관철해나가기 위하여 나가야 하였습니다.

사상사업의 여러 공정과 계기들을 통하여 위대성교양,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신념교양, 애국주의교양을 당원들의 준비정도와 현실적요구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투철한 주적관을 지니고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수들과 견결히 투쟁하며 적들의 결전

었다고 하시면서 대회가 앞으로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옳은 투쟁방향을 바로세울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혁명이 끊임없이 전진발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당앞에는 전당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여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여야 할 임무가 나르고있으며 당앞에 나선 중대한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기충당조직들, 특히 당세포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하고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고리로 됩니다.

당세포는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전투단위입니다.

우리 당안에 당조직들이 많지만 균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은 당세포입니다. 균중은 당세포를 통하여 우리 당의 숨결을 느끼며 당과 혈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세포가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혁명과업수행에 불려일으킬수 있으며 우리 당이 튼튼한 대중적지반우에서 령도력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향도해나갈수 있습니다.

현시기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우리앞에 가로놓인 온갖 시련과 도전들을 뚫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르고 있습니다.

날로 강대해지는 우리 국가의 위력에 걸맞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반공화국경제제압책동에 광분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당세포를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활동을 적극화해나가야 합니다.

전당의 모든 세포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정책을 결사옹위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세포위원장들이 선봉에 서서 광범한 균중을 불려일으키고 단결된 힘으로

투쟁해나가야 적들의 그 어떤 도발과 제책동도 물리칠수 있고 그래야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게 될것입니다.

오늘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총적과업은 전당의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만드는것입니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만든다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기충당조직건설사상과 로선을 계승하고 구현하여 세포안의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들로 키우며 당세포를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된 공고한 전일체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앞장에서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위력한 전투대로 강화한다는것을 말합니다.

전당의 당세포들은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강화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이 구호에는 현시기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방향과 목표가 담겨져있으며 여기에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열쇠가 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위한 담보가 있습니다.

당세포를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세포위원장들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제4차 세포비서대회이후 당세포들의 전투력이 보다 강화되고 세포위원장들의 품모와 일본새에서 많은 개선이 이룩되었

지만 아직도 당세포들의 사업기풍과 실력, 활동성은 당중앙이 요구하는 높이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습니다.

당세포위원장들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초급정치일군답게 성과와 경험을 적극 살리고 결함과 부족점들을 대담하게 시정구복하면서 더욱 분발하여 일해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의 세포위원장이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힘을 넣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김정은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세포위원장이 세포안의 모든 당원들을 건설한 혁명가,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가 될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원들의 사상생활을 강화하는데 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5대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하겠습니까.

당원들속에서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

의 시각이 오면 사랑하는 조국을 보위하여 한사람같이 용감히 떨쳐나서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당세포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고상한 도덕품성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세포위원장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문화도덕수준을 높이도록 교양하는것도 자기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라는것을 명심하고 사회주의도덕교양과 문화정서교양을 옳은 방법론에 기초하여 다양하고 참신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짜고들어야 하겠습니까.

당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당원들의 사상의지적단합을 강화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세포위원장들은 당원들에게 당조직관념을 바로세워주고 혁명과업수행을 기본으로 하여 분공조직과 총화를 실속있게 하며 당생활총화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높이고 세포안에 원칙적인 비판과 사상투쟁의 분위기를 세워야 합니다.

비판과 투쟁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당세포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세포위원장들은 당원들속에서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을 강화하여 온갖 부정적현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하였습니다.

세포위원장들은 당원후비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준비된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여 당대렬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세포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그들의 교양자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생활에서는 투수가 있을수 없으며 당세포안에 이중규율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일꾼들이 속해있는 당세포에서 일꾼들의 당생활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 그들이 평당원의 자세에서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교양과 통제속에서 긴장하게 일해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세포위원장들은 세포를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강화하는데 당세포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것은 당세포들앞에 나선 첫째가는 임무이며 당세포들의 충실성과 실천력도 결국은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서 검증되게 됩니다.

당세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나 하고 형식이나 차리는 구락부가 아니라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 제1선참호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당세포들에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방침과 지시를 전달하고 그것을 관철하자고 형식적인 호소나 하는 식으로 사업하고있는데 당정책관철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당조직은 살아있는 당조직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당세포위원장들은 현시기 세포사업의 중심을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총동원하여야 하였습니다.

지난 시기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뉘나 뉘나해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으로 조직동원하자면

세포위원장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사업,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임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정치조직사업이 다름아닌 당사업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인다운 자각을 안겨주고 그들을 혁명임무수행으로 불러일으키는 당사업이야말로 가장 영예로운 사업이며 또한 가장 책임적인 사업인 동시에 결코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당세포위원장의 본분이며 기본임무입니다.

세포위원장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맡겨진 혁명임무의 중요성과 그 수행방도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잘 해설해주어 그들이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가지고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지금 당정책관철의 제일선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가야 할 일꾼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폐배주의, 보신주의적인 현상들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세포위원장들이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상전을 힘있게 벌일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특히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필승의 신심과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며 생산적양상을 일으키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포위원장들은 당원들과의 사업을 대상의 성격과 수준,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맞게 실속있게 하여 모든 당원들이 조선로동당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과업수행에서 언제나 군중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포위원장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당정책을 관철하는 지름길이 과학기술에 있으며 생산장성의 예비도 과학기술에 있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기능공들을 아끼고 적극 도와주어 그들이 생산장성과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들을 많이 내놓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기 직종에 맞는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는 학습열풍,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서 집단적 혁신과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발휘되도록 하자면 사람과의 사업을 그들의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앞장에서 나아가고있는 전형단위 당세포들의 사업경험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마음을 맞추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단합된 힘으로 투쟁해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세포위원장들은 전형단위 당세포들처럼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합치고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고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의 생활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의 마음속고충과 생활상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며 가정방문도 자주 하면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혁신자,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신작칙은 사람들을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으로 이끌어가는데서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집니다.

세포위원장들은 자기 단위의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늘 일감을 두둑, 세뭇말이 안고 뛰어야 하며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면 남뉘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세포위원장들은 《돌격 앞으로!》라는 말은 아예 잊어버리고 배우지도 않으며 오직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웨침만 웨칠줄 알아야 합니다.

당세포위원장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초급정치일꾼다운 품모와 혁명적군중공작방법을 체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였습니다.

세포위원장들이 아무리 각오가 높고 열성이 있어도 초급정치일꾼으로서의 품모

와 사업방법을 지니지 못하면 대중속에서 지지와 신망을 얻을수 없으며 세포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해나갈수 없습니다.

당원들과 군중은 자기들과 제일 가까이 있는 세포위원장들의 품모와 사업기풍에서 우리 당의 모습과 령도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당세포위원장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인민적품모와 혁명적사업방법을 따라배워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형의 당초급일꾼,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인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굳게 믿고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대중령도방법의 모범을 보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적품모와 혁명적군중공작방법은 우리의 모든 당일꾼들, 당세포위원장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입니다.

세포위원장들은 혁명적군중관을 지니고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뜨겁고 진실하게 대하며 군중의 요구에 무한히 성실하고 군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참된 복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포위원장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참신하고 기백있는 정치사업방법, 군중동원방법을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군중과 늘 허물없이 지내면서 정을 나누고 고락을 같이해나가는 품성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당세포위원장이라고 다 호남이고 질색일수는 없겠으나 군중앞에서는 얼굴 표정 하나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원칙적이고 일을 제끼는 일꾼이라도 해도 항상 미간을 찡그리고 새파래 돌아가면 군중이 편하게 가까이 다가올수 없습니다. 세포위원장은 인간적인 향기가 있어야 하고 항상 검박하고 소탈한 품성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습관하고 체질화해나가야 합니다.

세포위원장들은 혁명적수양과 단련을 강화하며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하였습니다.

세포위원장들은 늘 자신의 준비정도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야 하며 혁명적수양을 쌓고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쉬지 말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세포위원장들은 언제나 군중에게서 배우며 학습과 당생활,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하고 단련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 당의 사상과 정책을 깊이 학습하여 정치리론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며 현대과학기술 지식과 문예지식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지식과 상식도 폭넓게 알아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현시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는데서 해독적작용을 하는 비사회주의적현상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그 원인은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 일꾼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인내성있게 하지 않고 사상투쟁의 강도를 높이지 않은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지금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책동과 제재압살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는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고 하시면서 적들이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는 목적은 우리 내부에 정치적불안정과 혼란을 조성하며 기본은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허물어버리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는데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비사회주의적현상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우심해지고있는 때에 청년들과 인민들의 혁명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혁명진지를 허무는 매우 위험한 작용을 한다고 하시면서 바로 여기에 비사회주의적현상의 엄중성과 해독성이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일대 혁명적인 공세를 벌일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 혁명가로 키우는 거점이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는 말단혁명초소인 당세포에서부터 투쟁의 불을 걸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당세포위원장들부터가 당직원칙이 강하고 투쟁력이 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포위원장들이 당과 혁명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것을 헤치는 경향과는 동요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당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선명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며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에 근로단체조직들을 적극 발동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법기판들에서는 비사회주의적현상의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계급적으로 예리하게 대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저해하고 해독적작용을 하는 위험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강한 행정적,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사회생활의 이모저모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현상에 대하여 전당이 전력을 다하여 투쟁할뿐아니라 전국가적, 전군중적으로 각성을 높이며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협조하며 아픈 사람,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다같이 행복하게 잘살고 다같이 전진하는 참다운

인문과 우리 식의 우월한 사회주의도덕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문화예술이 썩어빠진 부르조아반동문화를 압도하여야 사람들이 적들의 문화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지 않게 되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를 짓몽개버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문화예술 부문 당세포들에서 세포사업을 철저히 기본혁명파업수행에 복종시키고 창작가, 예술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혁명적인 예술의 힘으로 반동적인 예술의 침습을 타파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나날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인민들이 거부하는 줄작이 아니라 생활과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은 명작, 시대에 부끄럼이 없는 명작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의 혁명적문화예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모든 당세포들을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이 당세포를 중시하고 세포사업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세포를 중시하는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당세포들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세포위원장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실천력이 강하며 품성이 좋고 대중의 신망이 있는 핵심당원들로 세포위원장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당세포위원장들의 수준과 능력이자 당세포사업성과입니다. 세포위원장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고 강습과 방식상하, 경험토론회같은것을 자주 조직하여 세포위원장들이 발전하는 현실에 뒤떨어지지 않게 수준을 높이고 실천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 군당학교들에서 교수교양사업을 개선하여 당성이 강하고 정치실무수준이 높으며 고상한 인민적품성과 사업작업을 소유한 당세포위원장들을 많이 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과 초급당조직들에서 당세포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로해장악하고 당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당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당위원회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대책하며 당일군들이 직접 당세포에 들어가 세포사업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세포위원장들에게 사업방향을 명백히 주고 그 수행을 위한 방도와 방법론도 가르쳐주며 사업과정에 편향이 나타나면 제때에 바로잡아주어 그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경험을 쌓고

교훈도 찾으면서 일을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포위원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 움직이는 묘술을 알고 그 지레대를 손에 쥐도록 잘 키워주어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각급 당위원회들에서 일을 잘하는 당세포위원장들을 내세워주고 평가도 해주며 전망성있는 대상들을 후보간부로 장악하고 키우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초급당조직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세포위원장들을 발동하여 풀어나가며 세포위원장들이 묘술과 방법론을 가지고 일을 전개해나가도록 배워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세포위원장들이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부단히 각성시키며 사업을 원만히 할수 있게 조건을 보장해주어 그들이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당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 당세포들에서 세포사업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충성의 당세포를 쟁취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충성의 당세포를 쟁취한 세포들에서 그 영예를 고수하고 계속 빛내이도록 당적지도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도, 시, 군당위원장들을 비롯한 당책임 일꾼들이 당세포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한

다고 하시면서 당세포들에 자주 내려가 당생활총화와 당세포총회에도 참가하여 실정을 로해하고 당세포위원장들이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편향없이 바로해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세포의 강화이자 우리 당의 강화이며 당세포의 역할이자 우리 당의 명도력과 전투력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강화발전과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누가 알아주건말건 그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백옥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바쳐가고있는 당의 핵심, 미더운 초급정치일꾼들이 당의 말단전투초소를 지켜서있기에 조선로동당이 강하고 위력하며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모두 당과 혁명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하시신 역사적인 연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강화의 진로를 밝혀주고 당의 명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안겨준 불멸의 대강이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기대속에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지도하시고 폐회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올바른 금후 투쟁방향을 제시하며 자기 사업을 끝마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번 대회에서 당을 강화하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서 당세포가 차지하는 위치와 당세포위원장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였으며 현시기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백히 제시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당의 명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의 기본정신은 전당의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판철의 전위대오로 만들어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는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전당의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판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는 사업은 무겁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세포위원장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초급정치일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자각하고 분발하여 펼쳐나설 때 당세포는 강화될것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은 더욱 높아지고 우리 혁명은 더 빨리 전진하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전당의 세포위원장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각오와 투지를 가다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하며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선봉투사가 되고 군중의 참된 교양자가 되어 대중을 당정책판철에로 불러일으키게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당정책판철의 직접적전투단위인 당세포를 강화하여 당의 명도적역할을 높이고 혁명과 건설에서 양양을 이룩해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이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갈것이며 당세포를 중시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자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모든 당세포위원장들이 이번 대회의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중앙의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폐회를 선언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큰 힘을 넣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우리 당의 당세포중시사상과 방침을 깊이 새기고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판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혼심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앞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당에 충실한 핵심들이며 당정책판철의 전위투사들이 수심만 세포위원장들과 수백만 당원들이 있기에 당중앙은 마음이 든든하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동지들을 믿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동지들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자신들이 당과 혁명앞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있으며 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는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전당의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만들어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폐막



영광스러운 우리 당역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12월 23일 폐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이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3일회의를 지도하기 위하여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또한 중앙과 도의 당책임일군들도 함께 등단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지도 밑에 대회는 계속되었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당건설로선과 기층조직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세계에 분출되는 속에 진행되었다.

대천군당위원회 부위원장 송상범동지, 락방영에 군인수지일용용공장 2작업반 당세포위원장 김광철동지, 연안강릉생산업소 형제수작업소 생산1작업반 당세포위원장 조재근동지, 라선세멘트공장 공무작업반 당세포위원장 마철수동지, 봉산군산림경영소 체계감독당세포위원장 윤창환동지, 수도건설위원회 평양시건설관리국 동구주택건설사업소 5직장 5작업반 당세포위원장 박기선동지, 라철도공장 청년공작장 압축기작업반 당세포위원장 리천복동지,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 사무당세포위원장 김금철동지, 대동강구역 옥류초급중학교 당세포위원장 조명일동지, 허천군당위원회 부위원장 리석춘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주제의 사상문을 확고히 틀어쥐고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 달란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고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천군당위원회에서는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당세포들이 당의 로선과 방침관철에서 최후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모든 당세포들을 충성의 세포로 튼튼히 꾸려나가는 과정에 당세포들의 전투력이 더욱 높아져 군적업생산에서 해마다 성과가 기록되었으며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이 활성화되고 읍지구의 면모가 일신되게 되었다.

라선세멘트공장 공무작업반 당세포에서는 당원들이 당결정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옹가로 이끌어줄 때 당정책관철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다.

전투전장에 《오늘 동무는 당결정집행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표제를 단 경쟁도표판을 세우고 당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자력경쟁,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제정효율을 100%로 보장한것을 비롯하여 생산정상화에 적극 기여하였다.

모든 작업반원들이 언제나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하도록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든 락방영에 군인수지일용용공장 2작업반 당세포의 사업경험은 대회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당세포에서는 공장에 찾아오시여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인수님의 불멸의 영도적열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투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였다.

당적분공수행과정을 통하여 영예군인들이 군사복무의 나날에 발휘한 애국심을 안고 말은 기대에 정통하며 알뜰히 관리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

하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여 당에 기쁨을 드리었다.

토론자들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당세포를 수령사용위,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이 차넘치는 충성의 전투대로 튼튼히 꾸리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에서 준 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확고한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대중을 선도해나갈 때 모 든것을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다는 철리를 간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봉산군산림경영소 체계감독당세포에서는 남들이 보지 않는 깊은 산중에서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당원들의 직업적특성에 맞게 당조직사상생활지도방법론있게 진행하여 모두가 깨닫한 당적광명을 지니고 일해나가게 하였다.

당원들이 당세포의 결정을 집행하는 실천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도록 담당한 산물들이 자라게 하고 해마다 많은 량의 산물을 수확할수 있게 하였다.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 사무당세포에서는 일군들이 자기 힘을 믿고 분발하여 높은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해나가도록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관철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나날 도자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각종 마감재들을 개발하고 추체화, 현대화가 실현된 생산공정들을 완성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도과과학기술위원회가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는데 기여하였다.

당세포사업을 작업반원들의 마음과의 사업, 사상감정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성과를 거둔 연안강릉생산업소 형제수작업소 생산1작업반 당세포의 사업경험은 대회참가자들이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

에 자신을 비추어보게 하였다.

당세포에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심심산중에서 일하는 작업반원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접근하여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나감으로써 작업반이 화목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되게 하였다.

이 나날에 작업반은 사업조직으로 앞선 단위로 되었으며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는 2배로 높아진 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고 올해에도 연간강릉생산업소 태양발전소로 앞당겨 수행하였다.

수도건설위원회 평양시건설관리국 동구주택건설사업소 5직장 5작업반 당세포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자면 먼저 진정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가르치심대로 당세포사업을 진행하여 당원들과 건설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집단을 활력있는 전투대로 꾸리었다.

사람들의 성격과 심리에 맞는 올바른 교양방법을 구현하여 작업반원들이 당의 수도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수 있도록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게 하였다.

당세포가 군중을 당과 혁명의 정으로 이어주는 열매가 될데 대한 당의 뜻을 실현으로 받들어나가는 과정에 라철도공장 청년공작장 압축기작업반 당세포에서도 좋은 경험을 창조하였다.

당세포에서는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 작업반원들이 하나의 뜻과 정으로 굳게 뭉치고 생산에서도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토론들을 주의깊게 들으며 대회참가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진실이라는것과 당세포위원장 동지께서 뜨겁게 인격적 향기를 지니고 사업해나갈수록 성과

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세포위원장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토론들에서는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과 편향들이 비판되었으며 모든 당세포를 당중앙의 사상과 평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충성의 대오로 꾸려나갈데서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이 언급되었다.

토론자들은 당세포가 일군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에 힘을 넣지 않으면 그들이 인민의 복부로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없게 되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청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교훈을 찾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토론들을 통하여 대회참가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한 자기들의 사업과정을 당적광명과 원칙에서 심중히 돌이켜보았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갈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될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새기고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여 전당과 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확립에 적극 이바지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갈것을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의 가슴속에는 전당강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주체혁명의 전진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시

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다함없는 호모의 정으로 세계에 뚫어번지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전 전선에서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 주신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며 열광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폐회사를 하시었다.

대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사상과 평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력한 전투적참모부 무로 강화발전시켜나갈 두뇌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당세포를 우리 당을 떠받드는 혁명본변의 초석으로 다지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과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는 전위대로 튼튼히 꾸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혁명적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대회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는 당의 조직사상적공고성과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주체혁명의 시대대의 당건설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뜻깊은 대회합으로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본사정치정보단

정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1

100년, 세월의 물결이 흘러흘러 우리의 어머니 탄생하신 때로부터 어느덧 한세기를 이루었다. 우리 마음 추락봉마루에 달려간다. 오늘도 백두산전투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지켜선 모습으로 숙연히 계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

그이의 넋원이 더 활짝 꽃피는 위대한 강국의 세월에 맞이한 12월의 언덕에서 100년의 눈으로 우리르는 어머니의 모습은 진달래처럼 아름다우며 햇빛처럼 눈부신 참인간의 모습, 위대한 생의 귀감이시다. 어머니는 벌써 산명사수이시고 능숙한 지하공작원이시고 동지애의 화신이다. 이 모든 빛나는 모습과 더불어 오늘 더더욱 뜨겁게 새겨지는 한없이 소중한 성스러운 것이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어머니의 한생은 길지 않았지만 어머니님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고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한생을 어엿게 살며 루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한결음, 한결음... 여섯해전 12월 완공단계에 이른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무엇때문이었던가. 그이의 웅심깊은 시선은 어쩌하여 그러도 뜨거움에 젖어 계시었던가.



이곳 밝은 눈빛이 고집한 발걸음이다. 피골이 아니라 뜻을 따라야 참된 자식이라 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만장약한 총정의 인간들 천이던가. 만이던가. 차가운 바다물에 뛰어들어 최고사령관동지 안영희 다녀가시라 간절한 마음을 버리던 강제도와 무도병사들의 모습, 그들의 진정을 들여보시라. 경애하는 현수님께서 잊지 못하시는 14명 옥란비행사들,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도 돈다는 신념과 배짱을 안고 백두의 흑한속에서 결사판철의 불덩이되어 두려운 열음장을 녹이고 만년언제를 하늘높이 쌓은 백두산영웅 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이 심장으로 부른 노래도 어머니 배워주신 결사옹위의 혁명선봉이다. 시시각각 생명을 위협하는 폭우와 돌풍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시는 그 한길에 목숨바친 평범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에서도 어머니의 뜻을 대를 이어 빛내가는 천만자식을 보았다. 혁명의 근본을 깨쳐주시는 스승이신 어머니는 천만의 대오속에 영생하신다.

누구나 수령결사옹위를 인생관화하여야 한다. 그것은 앞을 봐도, 옆을 봐도 하나인 끝은 마음을 간직한다는 것이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맑고 실천의 무게가 똑같은 광선과 의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백만천번도 좋으니 늘 돌이켜봐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다. 너는 누구나. 혁명의 현수다. 우리는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키는 것이다.

김은물이 배인 배신자의 정수리에 철퇴를 내리쳐서 추상같이 단죄하시던 그 신념의 메아리는 우리 혁명의 어머니 시기가 다 인민의 거대한 힘으로 승화되어 울리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우리는 당신께 충실하리라.

그이는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위대한 강철의 명장, 천만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장려미치시는 자애로운 태양!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밝은 웃음을 위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김정일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나의 일리는 곧 결사옹위의 전효이다. 이런 일념을 안고 자기 일러, 자기 기대에서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공개처럼 오히려 강요한 공적정신으로 완벽한 창조물을 내놓는 사람만이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전위 투사이다.

길을 비껴라. 결사옹위의 대오에는 자기만을 위하여는 가짜혁명가, 말공부생이 있을 줄이 아는가.

오늘날 자력생생의 선구자, 과학기술결사옹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곧 경애하는 현수님의 영도에 충실하는 길이다.

자력자강 제일이러는 신념이 높아야만 제국주의물음을 무찌러버리게 할수 있는 무회철마를 만들어낸 금성드라코프공장의 로동계급이 전투현장에 써놓았던 글발을 우리모두 가슴에 새겨보라.

《주체란은 하늘로, 무회철마는 철뿔로!》

조권과 환경이 남보다 좋고 모든것이 풍족한 속에서 얻어진 창조물이라면 우리 마음 이리도 뜨겁고 눈물겹지 않으리라.

위대한 단리마시대의 산인 우리의 드라코프가 울리는 힘찬 동음은 자력생생의 노래, 과학기술의 노래이며 결사옹위의 우렁찬 합성파도 같다.

만년민족사의 꿈이 응축된 사회주의강국, 그것은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이다. 매일터에서의 위훈이 합쳐지고 매 인간들의 결음과 걸음들이 하나로 합쳐진 위대한 인민의 힘으로 이 땅에 장엄하게 새워지는 리상이 바로 세계가 우리라는 사회주의강국이다. 그것이 오면 우리의 어머니께서는 그 얼마나 기뻐하시라. 언제나 어머니앞에 몇몇한 모습으로 나설수 있게 삶의 순간순간을 수령결사옹위로 빛내이자. 쉬지 말고 가라고, 길을 끝까지 가라고 걸음걸음 떠맡아 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동지.

《사령관동지!》, 대사하지기전투장에서 울리던 어머니의 그 웅성은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메아리쳐온다.

추락봉마루에 눈이 내린다. 어머니 맞으시던 백두의 흰눈이다.

정년 그것은 우리 현수님 따르는 인민의 앞길에 어머니 뿌려주시는 뜨거운 촉부의 꽃보리이다.

12월은 100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과 더불어,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강용한 기상과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계신다.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동지.

우리 당의 명도자 강성번영하는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팔없이, 끝없이 촉부하시이다.

김철

고 또 돌아보셨던 어머니의 모습, 어린 나이에 지주집에 끌려가 연자방아를 돌리야만 하는 실음을 안으시고 사람은 왜 사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고 눈물속에 되뇌이시던 고단한 인생길이어.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을 안고 한 갈래, 한갈래 총서 《총성의 한길에서》 장편 소설 《유격구의 기수》를 읽어보면 그이의 피눈물이 그대로 흘러들어 가슴헌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우리들이다. 피어린 인생체험으로 찾은 혁명의 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해야만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을수 있고 신음하는 인민을 구원할수 있을을 누구보다 절절히 깨닫고 나서신 그 길이었다.

수령의 위대함을 짐작의 가장 깊은 곳에 명줄처럼 간직하신분, 수령의 인상을 자신의 운명으로 간직한 인간만이 고결한 삶의 자욱을 후세에 본보기로 남길수 있는 법이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정성히 들려오는 듯싶다. 우리 혁명력사에서 《41년도바람》으로 불리우는 엄혹한 그 나날에 급변하는 정세의 추이를 출세 가려보지 못하고 일시나마 사상자통용을 일으켰던 일부 대원들에게 하신 어머니의 간곡한 말씀.

사령관동지께서는 지난해 8월 소할마병회의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치한 정치, 경제, 군사적관찰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일제의 멸망은 확정적이며 시간문제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진리입니다.

동요와 배신의 회오리가 휩쓸던 준엄한 그 시기 과연 누가 이런 불같은 신념을 띠칠수 있었겠는가. 어머니의 그 말씀은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실현되는 과학적확신과 억척불변의 의지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어이하여 빨찌산의 명사수가 되셨던가.

남들같으면 손에 불화물을 들고 갑사령기를 바탕으로 돌리려는 꽃나이처시절에 벌써 총잡은 한인이 되신 어머니. 밀렵속 어디 가나 흔치 않을 수 있는 술발음을 총신수에 올려놓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총구가 움직이지 않는가를 가슴해보시며 앉으나서나, 눈오나 비오나 이른 새벽, 귀한 밤에도 겨누기런습을 하시었다.

명사수술을 두고 부러워하는 전우들에게 사자술이야 무슨 타고난 천성이겠는가,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싸우는 우리 전사들에게 있어서 사자술을 놓이는것은 단손의 군사적의무만 되는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신 장군님을 보위하는 숭고한 사명으로 되는것이라고 하신 어머니의 뜻을 말씀이 오늘도 세월의 명을 넘어 우리 마음을 찌릿하게 울려준다. 어머니님 당신 사신의 고비들이 우리 눈앞에 밝혀온다. 두자루의 권총을 망손에 잡아 쥐시고 기관총연발사격을 하듯 현수격멸의 불을 뿜으시던 무송현성전투, 사령부로부터 쏘라는 적을 유인하시느라 통에 진 양배에 총탄구멍이 뚫리는것도 모르고 불같이 내달리신 어머니의 불멸의 모습을 전하는 흥기하전투, 《사령관동지!》 하시며 한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셨던 대사하지기전투...

우리모두가 생생히 기억하는 력사의 화폭들이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우리 붉은데타이시절부터 교과서의 글줄을 읽고 혁명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라고 무심히 대관적이었던가. 단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진리라고 해도 머리속에 남는것과 심장에 남는것에는 엄연한 거리가 있다. 대사하지기전투에서 우리 어머니 남기신 그 모습을 지나간 력사의 화폭에서만 여긴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과 혁명의 귀중한 진리를 당 각하게 잃었다.

어머니의 결사옹위는 총탄이 우박치는 전장에서만 발휘된것이 아니었다.

해방된 강산에서도 어머니의 손에는 백두산시절처럼 수령보위의 권총이 쥐여져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길을 나갈때에도 부드러운 옷실집에 권총을 틀어잡으시었던 우리 어머니이시었다.

수령이 없으면 조국도 없고 나도 없다는 그의 투철한 관점을 흰빛의 변학을 모르는 백옥에 비기라.

수령의 기쁨속에 전사의 기쁨도 있고 수령의 걱정에 떨어뜨리는것이 제일본분이며 그 길에서 교생도 띠고 행복이라는 그의 인생관을 맑고 푸르른 하늘에 비기라.

오직 위대한 수령님밖에 모르는 어머니의 총정심은 한결의 티도 없고 한가닥의 흐림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절절한 회억의 웅성이 메아리쳐온다.

그는 나라가 해방은 되었으나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정세가 복잡하니 어찌 한시인들 제자리를 떠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일가친척을 찾는데도 미우어는 혁명동지입니다. 정숙동무는 나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항상 마음을 썼으며 내가 인민을 위하여 하라고 생각하는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어머니를 못 잊는 인민이여, 가슴쓰리고 아파도 기억해야 하라.

심신의 고통은 물어두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으키실 양부의 단추만은 자신께서 달겠다고 절절히 제단사에게 이르시었던단 끝내 그 단추를 달지 못하시고 오로지 수령님을 위하여 백옥같은 총정의 한마음을 유산으로 남기신 어머니이 아니신가.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저지도의 길에 그늘을 없애세라 밝은 웃음으로 바래드리시던 어머니. 그이의 값높은 삶은 인생의 교과서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절대적인 신념이고 숭고한 도덕이며 일상적인 생활로 되는 그런 깨끗한 충실성을 생명으로 간직한 인간만이 수령결사옹위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갈수 있고 영생의 절정에 오를수 있겠다.

김정숙어머니의 빛나는 생애와도 같은 성스러운 수령결사옹위, 이는 조선혁명의 생명이다. 그 생명의 뿌리이고 전형이신 우리 어머니.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오는데도 뿌리가 든든하면 거목은 철대로 드눌지 않는다. 주체조선의 백전백승을 담보하는 역설 뿌리를 주고 영원한 보증을 주신 어머니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가 우리에게 계신다!

이것은 세세년년 전해가는 인민의 환희이고 가슴부푼한 행복이며 백승의 한결같은 끝마로 가는 조건의 행운이다.

2

백두의 천연수림이 쇄하— 설레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혁명의 세 세대들을 뜨거이, 뜨거이 반겨맞는다.

《사령관동지!》

어머니의 귀키는 음성, 그것은 준엄한 전구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보위하는 성세, 방패가 되시어 버치신 심장의 목소리이다.

어머니의 제논과 제위가 년름마다에 깊이 깊어져있는 백두의 이갈나무여, 그 한 그루한그루는 이 땅의 후손들에게 뽕처럼 이야기를 풀없이 새겨주는 강사이런가, 그 강의 첫머리는 《사령관동지!》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시작되는것이 아니던가.

력사의 벽을 팽팡 울리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백두산의 메아리이고 혁명의 메아리이다. 자연의 메아리는 찾아들지만 혁명의 메아리는 영원하다. 어머니의 발자취가 력적인 백두산에서 새기를 넘어 울려오는 혁명의 제 1경위대원의 간곡한 당부들 새기는 인민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득히 차오르는것인가.

멀고먼 길을 멈춤없이 달려온 우리 혁명, 단리마시대의 눈썹은 기상으로 경애하는 현수님 따라 최후승리의 한길로 질풍노도 처나아가는 혁명의 진군길에는 제국주의의 사나운 팽풍이 찾아올 모른다. 시련을 뚫고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에 처억 처억 큰 자욱을 찍어가시는 위대한 선구자의 모습이 한쪽의 붉은기처럼 안겨온다. 오늘날도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를 승리로 고루하시는 김정숙어머니의 거룩한 그 손길.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다. 그 어떤 퇴색력에도 끄떡없고 언제나 신심은 백배하다. 어머니는 오늘을 위해, 후손만대의 승리를 위해 결사옹위정신을 굳건히 이어주시었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후대되어온다.

혁명이 하나의 생명체라면 그 생명을 담보하는 혁명은 바로 혁명의 심장을 지키는 수령결사옹위이다. 목덜미는 세계혁명운동을 돌이켜보라. 여러 나라들에서 피로써 개척한 혁명이 증오에서 좌절되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졌다는 경제력이 약해서였던가, 군사력이 약해서였던가. 올바른 수령관이 없었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가 없었기 때문은 한순간에 풀거품이 되어버렸다. 력사에 새겨진 진리는 바로 혁명이자 수령이 수령결사옹위이자 혁명승리이러는 것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수령결사옹위는 조선이 처음으로 보여준 새 모습이고 그 정신은 누구나 흉내낼수 없고 지어낼수 없는 조선혁명의 본래이고 영원한 흐름이다.

크지 않은 조선이 어떻게 초대국을 다스리는 강대국으로 존엄법할수 있는것인지 그 대답은 명백하다. 조선혁명이 존재하고

언제나 승리하게 하는 위대한 전통을 우리 어머니께서 혁명의 명줄로 물려주시는 것이다.

백승만을 펼쳐는 우리 혁명의 력사는 공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께서 이어 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피골기척처럼 지켜오며 전진해온 자랑스런 행로이다. 사령부경위중대, 오중총 7번대의 위를 따라서 해방후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아 배 끝은 경위대원들이 어엿하게 자라났고 그 대오속에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을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린다는 구마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보위하는 성세, 방패가 되시어 버치신 심장의 목소리이다.

어머니의 제논과 제위가 년름마다에 깊이 깊어져있는 백두의 이갈나무여, 그 한 그루한그루는 이 땅의 후손들에게 뽕처럼 이야기를 풀없이 새겨주는 강사이런가, 그 강의 첫머리는 《사령관동지!》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시작되는것이 아니던가.

력사의 벽을 팽팡 울리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백두산의 메아리이고 혁명의 메아리이다. 자연의 메아리는 찾아들지만 혁명의 메아리는 영원하다. 어머니의 발자취가 력적인 백두산에서 새기를 넘어 울려오는 혁명의 제 1경위대원의 간곡한 당부들 새기는 인민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득히 차오르는것인가.

멀고먼 길을 멈춤없이 달려온 우리 혁명, 단리마시대의 눈썹은 기상으로 경애하는 현수님 따라 최후승리의 한길로 질풍노도 처나아가는 혁명의 진군길에는 제국주의의 사나운 팽풍이 찾아올 모른다. 시련을 뚫고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에 처억 처억 큰 자욱을 찍어가시는 위대한 선구자의 모습이 한쪽의 붉은기처럼 안겨온다. 오늘날도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를 승리로 고루하시는 김정숙어머니의 거룩한 그 손길.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다. 그 어떤 퇴색력에도 끄떡없고 언제나 신심은 백배하다. 어머니는 오늘을 위해, 후손만대의 승리를 위해 결사옹위정신을 굳건히 이어주시었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후대되어온다.

혁명이 하나의 생명체라면 그 생명을 담보하는 혁명은 바로 혁명의 심장을 지키는 수령결사옹위이다. 목덜미는 세계혁명운동을 돌이켜보라. 여러 나라들에서 피로써 개척한 혁명이 증오에서 좌절되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졌다는 경제력이 약해서였던가, 군사력이 약해서였던가. 올바른 수령관이 없었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가 없었기 때문은 한순간에 풀거품이 되어버렸다. 력사에 새겨진 진리는 바로 혁명이자 수령이 수령결사옹위이자 혁명승리이러는 것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수령결사옹위는 조선이 처음으로 보여준 새 모습이고 그 정신은 누구나 흉내낼수 없고 지어낼수 없는 조선혁명의 본래이고 영원한 흐름이다.

크지 않은 조선이 어떻게 초대국을 다스리는 강대국으로 존엄법할수 있는것인지 그 대답은 명백하다. 조선혁명이 존재하고

언제나 승리하게 하는 위대한 전통을 우리 어머니께서 혁명의 명줄로 물려주시는 것이다.

백승만을 펼쳐는 우리 혁명의 력사는 공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께서 이어 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피골기척처럼 지켜오며 전진해온 자랑스런 행로이다. 사령부경위중대, 오중총 7번대의 위를 따라서 해방후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아 배 끝은 경위대원들이 어엿하게 자라났고 그 대오속에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을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린다는 구마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보위하는 성세, 방패가 되시어 버치신 심장의 목소리이다.

어머니의 제논과 제위가 년름마다에 깊이 깊어져있는 백두의 이갈나무여, 그 한 그루한그루는 이 땅의 후손들에게 뽕처럼 이야기를 풀없이 새겨주는 강사이런가, 그 강의 첫머리는 《사령관동지!》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시작되는것이 아니던가.

력사의 벽을 팽팡 울리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백두산의 메아리이고 혁명의 메아리이다. 자연의 메아리는 찾아들지만 혁명의 메아리는 영원하다. 어머니의 발자취가 력적인 백두산에서 새기를 넘어 울려오는 혁명의 제 1경위대원의 간곡한 당부들 새기는 인민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득히 차오르는것인가.

멀고먼 길을 멈춤없이 달려온 우리 혁명, 단리마시대의 눈썹은 기상으로 경애하는 현수님 따라 최후승리의 한길로 질풍노도 처나아가는 혁명의 진군길에는 제국주의의 사나운 팽풍이 찾아올 모른다. 시련을 뚫고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에 처억 처억 큰 자욱을 찍어가시는 위대한 선구자의 모습이 한쪽의 붉은기처럼 안겨온다. 오늘날도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를 승리로 고루하시는 김정숙어머니의 거룩한 그 손길.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다. 그 어떤 퇴색력에도 끄떡없고 언제나 신심은 백배하다. 어머니는 오늘을 위해, 후손만대의 승리를 위해 결사옹위정신을 굳건히 이어주시었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후대되어온다.

혁명이 하나의 생명체라면 그 생명을 담보하는 혁명은 바로 혁명의 심장을 지키는 수령결사옹위이다. 목덜미는 세계혁명운동을 돌이켜보라. 여러 나라들에서 피로써 개척한 혁명이 증오에서 좌절되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졌다는 경제력이 약해서였던가, 군사력이 약해서였던가. 올바른 수령관이 없었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가 없었기 때문은 한순간에 풀거품이 되어버렸다. 력사에 새겨진 진리는 바로 혁명이자 수령이 수령결사옹위이자 혁명승리이러는 것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수령결사옹위는 조선이 처음으로 보여준 새 모습이고 그 정신은 누구나 흉내낼수 없고 지어낼수 없는 조선혁명의 본래이고 영원한 흐름이다.

크지 않은 조선이 어떻게 초대국을 다스리는 강대국으로 존엄법할수 있는것인지 그 대답은 명백하다. 조선혁명이 존재하고

언제나 승리하게 하는 위대한 전통을 우리 어머니께서 혁명의 명줄로 물려주시는 것이다.

백승만을 펼쳐는 우리 혁명의 력사는 공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께서 이어 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피골기척처럼 지켜오며 전진해온 자랑스런 행로이다. 사령부경위중대, 오중총 7번대의 위를 따라서 해방후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아 배 끝은 경위대원들이 어엿하게 자라났고 그 대오속에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을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린다는 구마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보위하는 성세, 방패가 되시어 버치신 심장의 목소리이다.

어머니의 제논과 제위가 년름마다에 깊이 깊어져있는 백두의 이갈나무여, 그 한 그루한그루는 이 땅의 후손들에게 뽕처럼 이야기를 풀없이 새겨주는 강사이런가, 그 강의 첫머리는 《사령관동지!》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시작되는것이 아니던가.

력사의 벽을 팽팡 울리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백두산의 메아리이고 혁명의 메아리이다. 자연의 메아리는 찾아들지만 혁명의 메아리는 영원하다. 어머니의 발자취가 력적인 백두산에서 새기를 넘어 울려오는 혁명의 제 1경위대원의 간곡한 당부들 새기는 인민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득히 차오르는것인가.

멀고먼 길을 멈춤없이 달려온 우리 혁명, 단리마시대의 눈썹은 기상으로 경애하는 현수님 따라 최후승리의 한길로 질풍노도 처나아가는 혁명의 진군길에는 제국주의의 사나운 팽풍이 찾아올 모른다. 시련을 뚫고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에 처억 처억 큰 자욱을 찍어가시는 위대한 선구자의 모습이 한쪽의 붉은기처럼 안겨온다. 오늘날도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를 승리로 고루하시는 김정숙어머니의 거룩한 그 손길.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다. 그 어떤 퇴색력에도 끄떡없고 언제나 신심은 백배하다. 어머니는 오늘을 위해, 후손만대의 승리를 위해 결사옹위정신을 굳건히 이어주시었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후대되어온다.

혁명이 하나의 생명체라면 그 생명을 담보하는 혁명은 바로 혁명의 심장을 지키는 수령결사옹위이다. 목덜미는 세계혁명운동을 돌이켜보라. 여러 나라들에서 피로써 개척한 혁명이 증오에서 좌절되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졌다는 경제력이 약해서였던가, 군사력이 약해서였던가. 올바른 수령관이 없었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가 없었기 때문은 한순간에 풀거품이 되어버렸다. 력사에 새겨진 진리는 바로 혁명이자 수령이 수령결사옹위이자 혁명승리이러는 것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수령결사옹위는 조선이 처음으로 보여준 새 모습이고 그 정신은 누구나 흉내낼수 없고 지어낼수 없는 조선혁명의 본래이고 영원한 흐름이다.

크지 않은 조선이 어떻게 초대국을 다스리는 강대국으로 존엄법할수 있는것인지 그 대답은 명백하다. 조선혁명이 존재하고

언제나 승리하게 하는 위대한 전통을 우리 어머니께서 혁명의 명줄로 물려주시는 것이다.

백승만을 펼쳐는 우리 혁명의 력사는 공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께서 이어 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피골기척처럼 지켜오며 전진해온 자랑스런 행로이다. 사령부경위중대, 오중총 7번대의 위를 따라서 해방후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아 배 끝은 경위대원들이 어엿하게 자라났고 그 대오속에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을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린다는 구마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보위하는 성세, 방패가 되시어 버치신 심장의 목소리이다.

어머니의 제논과 제위가 년름마다에 깊이 깊어져있는 백두의 이갈나무여, 그 한 그루한그루는 이 땅의 후손들에게 뽕처럼 이야기를 풀없이 새겨주는 강사이런가, 그 강의 첫머리는 《사령관동지!》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시작되는것이 아니던가.

력사의 벽을 팽팡 울리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백두산의 메아리이고 혁명의 메아리이다. 자연의 메아리는 찾아들지만 혁명의 메아리는 영원하다. 어머니의 발자취가 력적인 백두산에서 새기를 넘어 울려오는 혁명의 제 1경위대원의 간곡한 당부들 새기는 인민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득히 차오르는것인가.

멀고먼 길을 멈춤없이 달려온 우리 혁명, 단리마시대의 눈썹은 기상으로 경애하는 현수님 따라 최후승리의 한길로 질풍노도 처나아가는 혁명의 진군길에는 제국주의의 사나운 팽풍이 찾아올 모른다. 시련을 뚫고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에 처억 처억 큰 자욱을 찍어가시는 위대한 선구자의 모습이 한쪽의 붉은기처럼 안겨온다. 오늘날도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를 승리로 고루하시는 김정숙어머니의 거룩한 그 손길.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다. 그 어떤 퇴색력에도 끄떡없고 언제나 신심은 백배하다. 어머니는 오늘을 위해, 후손만대의 승리를 위해 결사옹위정신을 굳건히 이어주시었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후대되어온다.

혁명이 하나의 생명체라면 그 생명을 담보하는 혁명은 바로 혁명의 심장을 지키는 수령결사옹위이다. 목덜미는 세계혁명운동을 돌이켜보라. 여러 나라들에서 피로써 개척한 혁명이 증오에서 좌절되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졌다는 경제력이 약해서였던가, 군사력이 약해서였던가. 올바른 수령관이 없었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가 없었기 때문은 한순간에 풀거품이 되어버렸다. 력사에 새겨진 진리는 바로 혁명이자 수령이 수령결사옹위이자 혁명승리이러는 것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수령결사옹위는 조선이 처음으로 보여준 새 모습이고 그 정신은 누구나 흉내낼수 없고 지어낼수 없는 조선혁명의 본래이고 영원한 흐름이다.

크지 않은 조선이 어떻게 초대국을 다스리는 강대국으로 존엄법할수 있는것인지 그 대답은 명백하다. 조선혁명이 존재하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리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100돐을 맞으며

우 표 발 행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머니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하시며 수령님의 군건설로선을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의 군건설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니는 충대를 끝없이 사랑하시였기에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들리시고 수령님의 군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조국이 해방된 후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보라드러신 나날은 불과 멧해박에 안된다. 하지만 그 나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420여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을뿐 아니라 평양학원도 30여회나 찾으신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학원개원식에 참석하신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양학원은 명실공히 조국의 민족학교라 부르시우는 김일성장군님의 학교라고, 학원에서는 모든 교육과 교양을 철두철미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원의 곳곳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그러시면서 평양학원이 위대한 수령님의 학교로서의 자기의 성과와 사명에 맞게 모든 교육내용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우리의것을 더 잘 가르치는 데로 지향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영생 불멸의 혁명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창작되었을 때에 노래를 평양학원 학생들이 대항상으로 부르도록 하시어 학원의 일꾼들과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일편단심 높이 받들어 모실 맹세로 심장을 더욱 세차게 뛰게 하시였으며 학원출입생들이 초소로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당의 핵심이며 인민군대의 정치간부들이 인동부대에 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기대는 크다고, 부대에 나가면 무엇보다도 모든 군인들을 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든든히 무장시키고 학원생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우리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 갖 조직된 인민군부대들이 하루빨리 정규군의 면모를 갖추도록 세심히 보살펴 주시고 정규부대건설의 관공지휘관부속사업에 깊은 관심을 들리시며 평양학원에 항공분야를 새로 나왔을 때 몸소 비행장건설에 나가시어 일흔을 두오십 사실들과 공상을 이여치며 찾아오시어 군복과 혁대, 배낭과 탄피, 탄창주머니를 비롯한 군수품생산을 다그치도록 이끌어주시어 불멸을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로선을 관철하시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인민군대의 군기들에도 굳이 는 부대를 상징하는 영광의 기발이라고 하시면서 군기의 도안작업으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과정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손수 수도 놓으시고 재봉기도 돌리신 어머니의 손길이 깃들여있었다.

그 나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정규혁명무력의 창건을 신노하시실 위대한 수령님의 복장을 갖추어드리는데 최대의 정성을 기울이시였으며 수령님께 드린 군복과 모자, 외투와 장화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자신께서 직접 마련하시었다. 역사적인 열병식에 성대히 진행된 뜻깊은 시각 김정숙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귀전에 들려오신것 같다.

세계 그 어느 명장도 우리 장군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며 군대를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인민군대는 오늘도 앞으로 더 영원히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 군열이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로!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말씀은 우리 혁명무력의 역사적사명이 무엇이며 제일생명이 무엇인지를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진정 정적혁명무력건설의 나날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수령님사상의 정수라울려서 수를 즐기게 하시어 김일성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100돐을 맞으며 국가우표 발행국에서 새 우표(유통권지 1종)를 창작하여 내놓았다. 유통권지에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한몸이

우리 인민은 언제나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추억할 때면 하나의 꽃을 생각한다. 포연처럼 빨찌산군복을 입고 시고 불날같이 웃으시는 그녀의 영상을 우리는 때때로 이 나라 천만민중이 소중히 지켜나가는 진달래꽃. 만물이 소생하는 봄계절은 아직 멀리 있어도 뜻깊은 12월의 이 시각 우리 가슴에 만발하는 진달래는 무엇을 속삭이는 것인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어머니의 한생은 길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고 혁명가로서, 인건으로서 한생을 여덟개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었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제일 사랑하신 꽃이다. **《진달래는 살아있는 혁명가, 빛나는 귀감을 아직 잊지 못하고있다.》**

그 누구도 대신 못할 진달래. 조국의 운명, 혁명의 운명을 보위하여 높이 울리신 충성들과 한몸이 그대 소생이 되시어 사랑받도록 막아드린 가련한 전장들...

시시각각 생명을 위협하는 굶주림속에서 자신의 목이었던 송기떡마저 전우들에게 다 주시고 동무

진 달 래

는 아침이슬을 머금은 진달래꽃가지를 정히 꺾어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시었다. 이어 어머니께서는 유적대원들에게 오메에도 그리던 조국 땅에서 볼게 된 진달래를 한아름만이라도 산천을 바라보노라 하우빨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부모형제들을 해방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 우리모두가 봄들이 기뻐하는것을 보고 배고픈 생각이 없어졌다. 그리고 밝게 웃으시던분. 대원들을 위해 총포수이 울부짖는 전장소리가 끊는 죽가마를 이고 달려서던 어머니! 그러저 자신을 장거리 혁명가 바치시어 조국해방의 봄을 앞당겨주시고, 후손대대의 창창한 앞날을 펼쳐주시고도 어머니는 언제나 한몸이시었다. 해방후 그처럼 그림자고향으로의 길도 뒤로 미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의 선을 받들어 방방곡곡을 찾으신 김정숙어머니이시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김일성장군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흥분의 세계를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에 담아 고결히 러놓으시었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대가 비상히 높아진 승리의 언덕에서 진달래를 안아보노라니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되시어 조국해방의 봄, 혁명의 봄을 불러오신 김정숙어머니의 불멸의 업적이 더욱 뜨겁게 가슴을 적셔준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은 너무도 짧았다. 하지만 그녀의 성스러운 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길이 간직되어있을것이다. 영원히 지지 않는 충성의 꽃, 봄을 먼저 알리는 진달래와 함께!

본사기자 리 건

회 령 8 경

그리고 옛 회령읍성의 푸대였던 《가오루》를 동쪽부터라고 하였으며 서쪽은 오늘의 회령시 망양나루터일대를 이르는 말이다.

봉의산은 오늘의 회령시 남쪽에 위치한 산인데 산을 일명 《봉의산》이라고 하였다.

19세기 초 편찬된 《관북 6진 19보기》에는 다른 또 하나의 《회령 8경》이 실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오산의 저녁노을》, 《운두성의 석양풍경》, 《활리의 피프소리》, 《단강의 고기잡이》, 《달밤의 팔레리정전야》, 《달밤의 팔레리정전야》, 《해질녘 물고기》 등이 수록되어있다.

여기서는 금강 강물에서 나와 머리를 쳐서 저와 같이 생긴 오산이 붉은 저녁노을빛에 휘감길 때면 마치 금빛자라가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는것처럼 황홀하다고 전해오는 오산의 저녁노을을 첫번째 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황혼이 깃들면이면 불덩이 같은 해가 운두성기위에 걸려있고 넓은 구름사이로 퍼져가는 락도가 그 주변을 붉게 물들이는 운두산일대의 그윽한 자태, 나라방위에 필요한 인재들을 선별하는 활에서 금수들의 흥을 돋우어주곤 했다는 피프리의 저저림, 이른아침 실안개 가버이 서려오는 두만강가며 이삭베는 제철이면 풍요한 작황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는 벽경, 달빛이던 맑은 물에 빨래를 행구며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녀인들의 모습과 가락맞추어 울리는 방치소리도 달밤의 유정한 정서를 더욱 길게 해준 회령의 광경 등 《회령 8경》의 매 대상은

각각 자기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회령의 뛰어난 경치를 함축하고 산경도 끝없는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다정다감한 인정세와 고상한 생활자취를 풍만하게 반영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회령 8경》에 관한 자료가 여러가지로 전해지고있는 사실은 예로부터 회령이 수려한 산천경개와 풍부한

새 조국건설에 쌓아올리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준다. -부명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백두의 전구에 새겨진 친위전사의 고결한 생애 대한 불멸의 화폭

총서 《총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사령부의 특사》에 대하여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정신에 대하여 감명깊게 형성한 총서 《총성의 한길에서》가 창작된 때로부터 이젠 40여년 세월이 흘렀다. 주제 64(1975)년 총서 4권 4권으로 되는 장편소설 《작품의 기술》가 나온 이후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생애와 혁명정신을 현대별로 취급한 수련들이 계속 창작되었다.

주체문학예술의 제보인 총서 《총성의 한길에서》는 조국과 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숙어머니에 대한 진실하고도 깊이있는 형상을 펼친 것으로 하여 세기를 이어오며 삶과 투쟁의 귀중한 교과서로 되고 있다.

4.15 문화혁명에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올해에 총서 《총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사령부의 특사》를 내놓아 천만민중의 가슴을 어머니에 대한 경모심으로 뜨겁게 달구어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숙동지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사령부의 전략적구상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공작활동을 수없이 벌리시었다.

뿐만한 남대원들에게도 힘에

비탄한 애국적인 청년들과의 면회가 맺어지게 된다. 어머니께서는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도 사명관들의 사상과 행동에 밀착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시며 혁명의 길에 이끌어 주신다. 또한 주적남에 눈물이 비탈린 밤에도 일으키려던 천도교인들과 마을사람들과의 싸움을 령기용병으로 미연에 방지시킨다.

한편 작들은 공산당에서 점차 늘어나고있는 변화와 어머니의 활동과 결부시키면서 어떻게 하나 혁명조직정신들을 다 알아내기 위해 그이에 대한 집중탐사를 조직한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늘들이 보는 앞에서 지치지 않으려는 한녀의 생일축하모임을 조직하는 동시에 대담하게 혁명조직정신들의 비밀모임을 가졌음을 감시한다.

어머님께서 사령부에서는 사령부에서 맡겨주신 혁명일부수행에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하다면 그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작품에는 어머니께서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하시는 생각이 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마다 장군님께서라면 이 정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하는 생각을 하시였으며 사명관들의 사상과 뜻을 투쟁방식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도를 찾아내셨다. 하여 어머니께서는 늘들이 생각지 않고 감시하는 속에서도 어우락

같이 하시였으며 남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음을 많이 쓰셨다고, 우리 어머니의 인정세는 정말 끝이 없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뿐 아니라 해방후에도 혁명정신과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불려주시었다.

바로 이 호칭에 어머니께서 지니신 인정미가 그대로 응축되어있는것이다. 장군님께서 어머니의 응집되고 따뜻한 인정세를 여러 인민들과의 관계에서 감명깊게 체험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적폭격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소설을 통하여 수령의 사상과 뜻을 결사의 의지로 받들고 혁명정신을 적극 구현해나갈 때 어디서나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온넛으로 절감하게 된다.

어기에 작품이 발표되는 커다란 감회되어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사령부의 특사》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또한 서고급의 그 어느 여성혁명가도 지닌적이 없는 인정미를 지니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품모를 감명깊게 형성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우리 어머니를 언제나 인민들과 고향

을 같이하시였으며 남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음을 많이 쓰셨다고, 우리 어머니의 인정세는 정말 끝이 없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뿐 아니라 해방후에도 혁명정신과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불려주시었다.

바로 이 호칭에 어머니께서 지니신 인정미가 그대로 응축되어있는것이다. 장군님께서 어머니의 응집되고 따뜻한 인정세를 여러 인민들과의 관계에서 감명깊게 체험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적폭격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소설을 통하여 수령의 사상과 뜻을 결사의 의지로 받들고 혁명정신을 적극 구현해나갈 때 어디서나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온넛으로 절감하게 된다.

어기에 작품이 발표되는 커다란 감회되어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사령부의 특사》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또한 서고급의 그 어느 여성혁명가도 지닌적이 없는 인정미를 지니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품모를 감명깊게 형성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우리 어머니를 언제나 인민들과 고향

